

해남미남축제, ‘안전 축제’ 기준 만들었다

3년만의 대면 행사 16만5천여명 방문 성향
안전사고 ‘0’ 달성…대표 먹거리 축제 정착

제4회 해남미남축제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열리면서 ‘안전한 축제’의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18일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제4회 해남미남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결과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다중행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의 축제 재개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 철저한 안전 관리 준비를 통해 ‘안전한 축제’에 대한 전국

적인 기준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총 16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으며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해남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 퍼포먼스·체험과 지역민들이 중심이 된 다양한 공연을 통해 방문객들의 호평 속에 해남을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거듭났다.

해남의 대표 농수산물인 배추, 김, 쌀, 고구마 등을 이용한 ‘세계인과 함께하는 515 김치비빔·2022인본 닭장떡국 나눔’, ‘추억의 구이터’ 등 대표 프로그램은 방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한 올해 해남미남축제에 16만5천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해남군 제공>

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미남축제 대표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김치비빔, 해남품은 배추만두, 전통막걸리 만들기, 떡메치기, 고구마 고추장 만들기, 해남쌀 클레이 등 해남 농수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해남의 대표 음식점들이 참여한 ‘미남

푸드관’과 읍·면 대표 농·수산물로 만든 ‘주전부리관’, 해남 청정농수산물 시식행사 등 축제장 어디에서나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들이 호평받으며 해남의 맛을 선보이는 맛의 축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남형 ESG를 선도하는 축제로서 미남푸드관 다회용기 사용, 플로깅

활동가 모집, ESG 참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환경 축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졌다.

보고회에서 올해 축제의 성공 요인을 이어 나가는 한편,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방문객과 20~30대 방문객 체험 프로그램 확대 방안, 교통 체증·주차 문제 해결 방안, 주 행사장 확장성 등 미남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3년 만에 대면행사로 진행됐기에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와 유관기관, 군민의 협조로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며 “성과보고회 결과·방문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알차고 의미있는 해남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주경찰 “음주 운전 꼼짜마”
‘때·장소 불문’ 집중 단속 실시

나주경찰서는 18일 “최근 나주시 남평읍 일원에서 교통경찰과 기동대 지원경력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주경찰서는 최근 주민 치안 불안 요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남평읍 일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치안 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평읍 일대를 수시 이동해 단속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했다.

박상훈 나주경찰서장은 “안전을 넘어 안심을 주는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주민 치안 불안 요소 관련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주민 편의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본격화

대형 항공기 취항·중장거리 항공 노선 유치 기대

무안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를 2천800m에서 3천160m로 연장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무안군은 18일 “최근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 계획·지형도면 변경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피서리 일대 6만8천378㎡가 공항 부지로 추가 편입되며 총사업비 492억원에 공사 기간은 30개월이다. 전체 사업 구간은 편입되는 총 238필지 6만8천378㎡로 국·공유지 116필지(2만6천378㎡), 사유지 122필지(4만2천㎡)다.

세부 사업 내용은 활주로와 유도로,

착륙대가 360m씩 증가되며 기존 통신시설·이설 등이다. 또한 지방도 등 도로 관련 공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사 진행을 위해 전남도가 부산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일괄 위탁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설되는 지방도 815호선 구간은 망운면 소재지에서 무안군의 역접사업인 MRO산단 입구를 거쳐 지난 1월 개통된 청계면과 무안공항을 잇는 4차선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4.54km 구간이다. 전남도가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추진할 예정이다.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2천800m에서 3천160m로 연장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무안국제공항 전경. <무안군 제공>

무안군 관계자는 “2025년 하반기 활주로 연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대형 항공기 취항과 중·장거리 항공 노선 유치 여건이

마련된다”며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공사도 같은 해 마무리돼 2026년 개통되면 접근성이 향

상될 뿐만 아니라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 채택…가동 중지 가치분 신청서 제출

영광군의회는 1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임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규탄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영광군의회 일동은 광주지방법원에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빛원전 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140여개의 공극(구멍)이 발생했고 내부 절

판 부식, 철근 노출 등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가동이 5년여간 중단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4호기 재가동 이전 지역 주민과 약속한 7대 사항을 이행 후 가동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견을 무시한 채 재가동에 들어갔다.

군의회는 “국회에서 2019년 한빛 3·4호기 원전공급 유관기관 협의체를 출범시켜 부실공사 근본 원인 규명과 군민 명예 회복 등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협의체 출범이후 단 한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관계 기관인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은 부실공사 후속 대책으로 합의된 7대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군민의 뜻을 무시하고 재가동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암군,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 주력

연료비 등 동절기 긴급 복지지원 집중 홍보

영암군은 18일 “겨울철 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복지 지원은 주소특자의 사망, 실직, 중환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곤란에 처한 저소득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선지원-후조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생계와 주거 지원을 비롯해 300만원 내의 의료 지원과 학년별 교육비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동절기(10월

부터 3월까지)에는 연료비를 특별 지원하고 있다.

군은 관내 인구 이동량이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상회보를 게시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연료비 지원이 가능한 내년 3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힘쓸 예정”이라며 “위기가구가 지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오는 28일 시민공청회 개최

목포시는 18일 “오는 28일 오후 2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도희 목포해양대학교 환경·생명공학부 교수가 주제하는 토론은 각 분야 전문가, 소각방식별 시공운영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소각처리방식(스토커, 열분해) 운영·효율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감소를 위한 대기오염물질저감시설 등을 설명하고 자유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등을 진행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시민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창권 목포시 폐자원시설팀장은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해법 모색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국 최대규모 프리미엄 토탈센터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7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예다을 상가 2층

전문 기사 모집

카메라

전문 수리 기술자 모심

마스타 레벨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 특별우대
정규직 급여 상담 후 결정

소니서비스광주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